

夏

불기 2555년 여름호 통권 91호

보디 시즌버



(재)정보서관자재회

<http://jungtoh.com>

달라이 라마 직속 자문 롽상룽뚝 스님 구사론 대강좌

구사론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비(드러남) 달마(법) 꼬샤(창고) (장으로 나뉜다)로서, 부처에 이르는 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8개의 품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신 논서입니다.

세친보살께서 이 논서에 구사론이라 이름하신 이유를 정법을 구현하기 위해 유루有漏의 문사수開思修 삼혜三慧와 구생혜俱生慧들을 설하는 논서가 智를 이끌기 때문이라며, 이 논서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구생혜를 의지해 무루無漏의 혜慧가 생기므로 자기의 마음에 바른 법을 드러나게 하는 원인과 방편이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셨습니다.

마하보디교육원에서는 여러 식자들의 요구로 현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직할 학교인 인도의 "INSTITUTE of BUDDIST DIALECTICS" 에서 구사론을 가르치시는 롽상룽뚝 스님을 모시고 10일 동안 구사론 대강좌를 펼칩니다.



강사 : 롽상룽뚝 스님 (통역: 효암스님)

룡상룽뚝 스님은 20세에 발심 출가하여 티벳 캄 지역 조리 간덴 세둑 펠게링 사원에서 경학을 수학하시고, 인도 대뵤사원에서 20여년간 경학 수학을 마치 뒤 규메사원(하밀원)에서 밀교를 수학하시고, 현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직할 학교 "INSTITUTE of BUDDIST DIALECTICS" 에서 최상급반 - 밀교반, 율장반, 보성론반과 구사론반을 가르치십니다.

접수안내

- 일 정 : 2011년 6월 2일(목) ~ 6월 11일(토) 10일간 / 매일 4시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 대 상 : 스님, 재가자
- 수강료 : 40만원 (감액 혜택: 학인스님, 법납 10년 미만 스님 20만원)
- 수강 접수처 : 마하보디교육원(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전화 : 052-264-1007, 0117 팩스 : 052-264-0209
- 주관 · 주최 :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

(재) 정토사관자재회 마하보디교육원

전화_052)264-1007, 0117 팩스_052-264-0209



여는 글	04	자제병원 기공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능 행
마하보디 특집	06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자제병원건립 자비실천	김태홍
명상카툰	10	하늘, 땅... 그리고 나	용정운
공덕의 향	11	아름다운 기부	편집부
명법문 · 명강의	12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 현
라다크 순례기	16	조현의 라다크 · 잔스카르 순례기	조 현
경전 이야기	20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 한 그루 보리심의 나무를 심자	원 호
심리치유	22	심리치유 - 자기분석	김경일
만화로 만나는 뜨락	24	하심下心의 마음	최영순
의학이야기	26	척추가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두경우
임상의 숲	28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남은미
보디사트바 향기	30	나의 진여자성	
우리들의 이야기	32	하나, 상 진 지장정사주지 · 마하보디상담대학원 1년	
	34	둘, 이윤희 여여청년회회장	
	36	셋, 진말숙 호스피스 봉사	
정토마을관자재회 소식	38	정토마을관자재회 소식	
자제병원	40	자제병원	
정토마을	41	정토마을	
후원 안내	42	후원 안내	
CPE 교육 안내	43	CPE 교육 안내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안내	44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안내	
보디사트바를 법보시하는 분들	45	보디사트바를 법보시하는 분들	

2055년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하며 5월 29일 자제慈濟병원 기공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토를 일구시는 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 자비를 향하여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읍니다.

풍요로운 삶과 평화로운 죽음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자제
병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항상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어 든든합니다.

님께서 정성과 사랑으로 밝혀주신 연등은 언양과 정토에
서 예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연꽃 닦은 마음, 연등
공양하는 마음 닦아, 자비를 심지로 삼고 헌신을 기름 삼아
자신의 열정과 서원을 불태워 어둠을 밝히며 원을 이루소서!

한 잎 한 잎 연꽃잎 말아 붙인 연등 불 밝힐 때 무명이 밝아
지기를..... 2555년 전 룸비니 동산에 찬란한 광명의 빛을 밝
히며 싯다르타 태자 부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나이다.

당신께서 오신 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염원하며 연꽃
등에 불을 밝힙니다. 희망의 불, 용서의 불, 평화의 불, 자비
의 불, 밝음의 불, 나눔의 불! 모든 존재들 가슴에 밝게 빛나
기를 바라는 따뜻하고 진실한 염원을 담아서 불을 밝힙니다.

능행 | 마하보디교육원장

‘자제병원기공식’이 2011년 5월 29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언양 자제병원 앞마당에서 펼쳐집니다.

4월 달에 기공식을 하려고 했었지만 시공사를 정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어 날짜를 5월 29일로 미루어 잡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쉽지만은 않은 준비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기공식이 이제 정말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 장가시집 안가 시면 모두다 꼭 다녀가시기를 청합니다. 주변에 계신 이웃 친척 모두 모시고 그날만큼은 이 자제병원 건립도량에 오시어 터를 밟아주시는 옹호 신장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제병원을 같이 일구어가는 스님들과 함께 저는 남은 준비 과정 마무리 지으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아름다운 오월 부처님 오신날과 함께 기뻐하며 뜻깊은 자제병원 기공식 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卍

언양?정토마을 언양 자제병원 건립부지에서

능행 합장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자제慈濟병원건립 자비실천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임종을 앞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가족, 주변 사람들까지 죽음이라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향상된 삶의 질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태홍 | 편집부

● 인드라망으로 연결된 우리네 삶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10만명당 28.4명, 2위 헝거리 19.6명), 사회적 지출 수준은 34위(35개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공복지 지출 7.5%(2007년),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은 매년 증가하여 OECD국가 중 아주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선진국가'로 가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가정의 경우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원 중 말기암이나 희귀난치성말기질환, 말기질환이 발생할 경우 환자와 환자가족은 적절한 통증완화와 증상관리를 받지 못하고 삶의 질이 저하된 채 임종을 맞이하고, 대부분 가정과탄, 가족붕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회구성원의 저하된 삶의 질은 사회에 다양한 표현의 폭력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 절도, 성폭행, 폭력, 자살, 이혼, 가출, 결손가정 속출 등 특히 청소년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직접적 대상자는 말기환자이지만 삶의 질 향상은 환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 한국은 완화의료기관 절대부족 국가

현재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중 완화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은 8개 기관에 불과하며, 완화의료전문병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완화의료를 제도적 보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서비스 질에 대한 표준화가 없어 완화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이러한 서비스 표준화 부재로 인해 완화의료 수가와 홍보, 공급시설 또한 부족합니다.



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에 건립 추진 중인 『자제慈濟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표준이자 롤모델로 모범적인 완화의료 전문기관입니다. 자제병원은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에 위치한 정토마을 호스피스를 더욱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형태로 재구성한 병원입니다.

● 자제병원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힘

자제병원 부속교육기관인 마하보디교육원은 이미 건립되어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 교육프로그램, 요양보호사교육, 세미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 내 임상 전문 훈련 교육기관 임상보디사트바(CPE)교육원과 전문 상담지도자 양성교육기관인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이 설치 운영되어 자제병원의

인적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제병원을 이끌어갈 본 공동체의 완화의료 전문 인력들은 이와 같은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관자재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전인적 돌봄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년 생사의 현장에서 임상경험을 중심으로 몸 받쳐 헌신하며 완화의료 최고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음은 물론 독립형 완화의료전문 시설을 운영하며, 10년 동안 완화의료 전문병원 건립을 기획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온 것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년간의 완화의료 현장에서의 임상 경험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전문 인력양성 등 세심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온 만큼 자제병원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완화의료의 대표 모델로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완화의





료전문병원인 자제병원은 국내 완화의료 전문병원의 새 지표를 열며 완화의료 롤모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 완화의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완화의료 대상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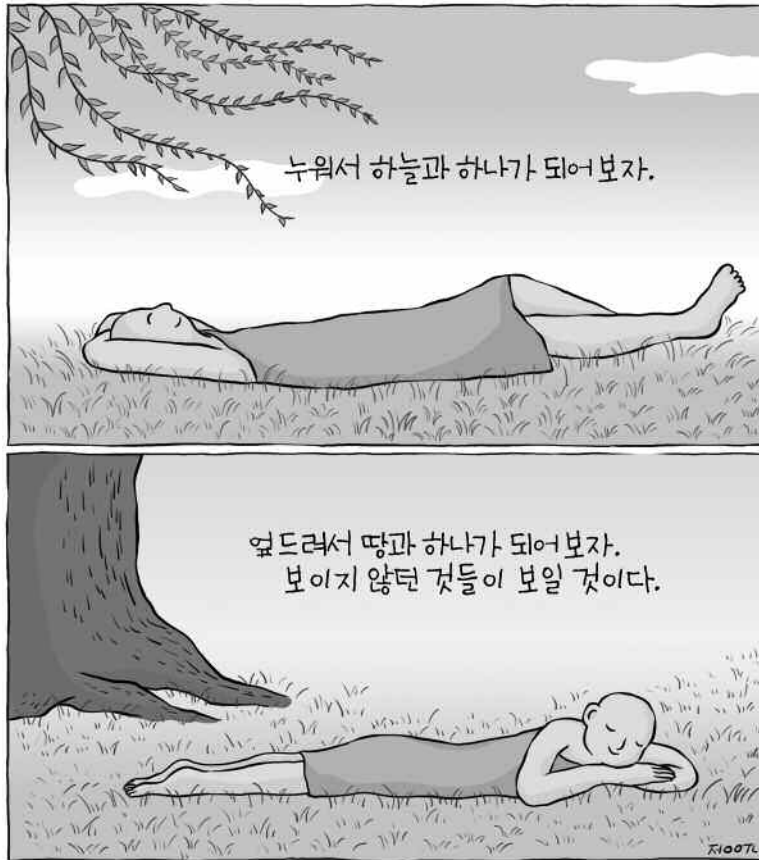
● 한국불교의 원동력-자제병원의 희망과 비전

현재 우리나라의 완화의료 전문 병원은 돌봄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완화의료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완화의료 대상자들을 수용하는 과거의 중증환자 구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완화의료 전문 병원으로서의 운영체계, 말기환자의 생활특성에 대한 이해, 시설의 물리적인

구조 등은 아직 미비하며 이로 인한 비효율적인 문제는 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언양 『자제 병원』은 완화의료전문병원으로써 말기암을 비롯한 희귀난치성말기질환, 말기질환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입원 서비스는 물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체 내 완화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모범적 국내 완화의료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제 병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통하여 한발 앞서가는 불교, 세상의 빛이 되는 불교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예방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서로가 존중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卍



자제병원 건립기금으로 마지막을 회향하신 성오스님, 도열스님... 그리고 할머니!

편집부

새싹들이 파릇파릇 생명을 움트는 4월!
정토마을은 세분의 환자분들이 비슷한 시기에 극락을 향해 떠나가셨다. 11년 전, 2주를 못넘긴다는 판정을 받고 오셔서 11년을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성오스님, 그리고 정토마을에 너무 늦게 온 것에 대해 늘 안타까워 하셨던 도열스님, 마지막으로 한복임 할머니가 그분들이다. 이 세 분은 당신들의 마지막 유품과 전 재산이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쓰여지길 기원하며 정토마을 공동체에 기부하셨다.

성오스님은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시다 지난 4월 26일 아침을 잘 드신 뒤 홀연히 임종하셨다. 스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1700여만원은 스님의 유언에 따라 자제병원의 건축기금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그리고 도열스님은 폐암 말기로 지난 4월 중순에 입적하셨는데 '정토마을이 마지막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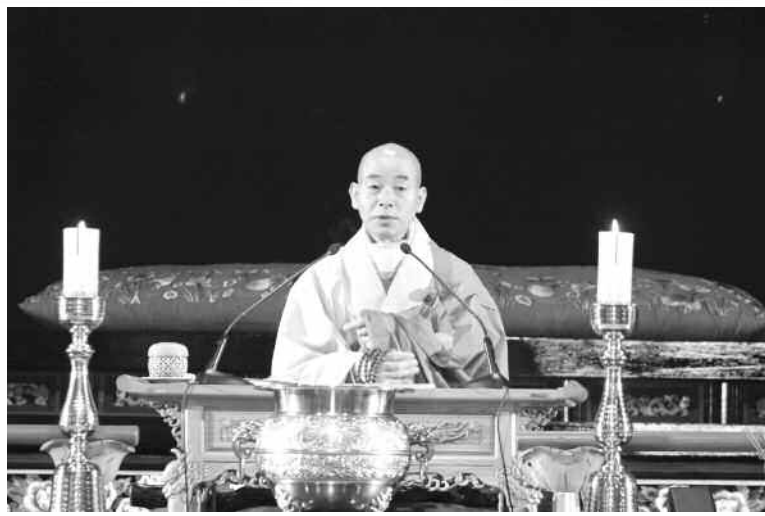
오는 곳 인줄만 알았다. 진작 왔어야 했는데...' 라고 말씀하셔서 주위의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셨다. 스님은 예술인으로서 소장하고 계시던 사진과 그림들, 그리고 5천만원을 정토마을에 기부하셨다.

마지막으로 한복임 할머니는 의식없이 정토마을에 오셨다가 의식을 회복하여 가족들과 눈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시고 임종을 맞으실 수 있었다. 들뜬 아드님께서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1000만원을 자제병원 건립기금으로 기부해 오셨다.

이 세분의 임종은 5월 29일 자제병원 건립 기공식을 앞두고 있기에 정토마을 공동체 가족들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고 있다. 공동체 스님들과 임직원들은 두 분 스님들과 할머니의 뜻에 깊은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卍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 현 | 관음사주지



◎ 출가의 의미란 무엇일까?

부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며, 부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부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다. 부처님의 유산은 승물이라는 문화재와 같은 유형의 유산과, 진정한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무형의 유산이 있다.

출가자는 부처님이 2600여 년 전에 깨달으셨던 진정한 깨달음의 내용이 출가자의 가슴 속에서 새롭게 돌아나야 하

녹취 | 이길수



며,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향상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출가는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므로, 어렵고 힘들고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일로서 출가의 공덕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 하겠다.

◎ 그럼 나라는 존재의 참모습은 어떤 것인가?

지금-여기서 살아 숨쉬고 있는 나는 살아있는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다. 이세상의 온갖 진귀한 보석을 다 준다고 해도 나의 목숨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나' 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무게추가 동일한 유일무이한 귀중한 존재다.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과 똑같이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말이 바로 “天上天下唯我獨存”이다.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다 “天上天下唯我獨存”이다.

부처님 재세시 제자들이 탁발을 나간 빈 마을을 여래께서 둘러보시던 중, 피골이 상접한 채로 아무런 간호를 받지 못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환자를 발견하시고는 음식을 제공하고 목욕, 세탁과 청소 등 환자 수발을 끝마치고는 때마침 탁발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환자를 돌보는 일이 곧 여래를 돌보는 일과 같다.” 중생 한 명 한 명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또한 중생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중생이 곧 부처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

내 마음이 허공과 같아지면 부처의 경계를 안다고 했다. 내 마음이 텅 빈 허공과 같을 때 그것은 오염될 수도, 상처받을 수도 없다. 내 마음이 허공처럼 텅 비어질 때 부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가장 강하고, 가장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 극락정도란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세상이다. 중생이 곧 부처의 분신임을 인정한다면 지금 당장 부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부처의 눈과 귀를 가질 때 이 세상을 정도로 만들 수 있고, 괴로움도 행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채널이 있고 선택권이 있다. 불성의 채널에 맞추면 극락세계에, 지옥의 채널을 맞추면 굶주린 영혼이 되기도 한다.

◎ 우리는 부처님의 참된 유산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6년 고행은 고행의 끝이 아니라 전법 수행을 위한 또 다른 고행의 시작일 뿐이었다. 부처님 성도 당시 인도는 바라문교가 지배하던 시대에 불교 전법을 위한 45년은 그야말로 한 걸음 걸음 피가 맺힐 정도의 고행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쓴 '장노니의 계송'에 나오는 부처님은 언제나 미소 짓고 계시는 분, 따뜻하고 훌륭한 스승님으로 등장하고 있다. 고통 속에서도 미소와 따뜻함을 잃지 않는 부처님의 이 모습은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분이란 것을 말해 준다. 부처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출가자는 마땅히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처님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며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출가자로서의 행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욕심을 줄이고 만족할 줄 알며, 계율을 지키고 보시하라. 이 정신을 지키고 실천한다면 지금-여기가 극락세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부처의 눈과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을 비워 허공과 같이 텅비고 맑은 마음이 되었을 때, 부처님의 숭고한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아 내 안에서 키우고 또 키워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숭고한 유산의 씨앗을 심어주어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할 수 있으리라.

◎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나 자신이 부처와 똑 같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 확신 속에서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곧 자유이고 해탈로 가는 길이다.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제자는 '부처님의 유산을 어떻게 갈무리하고 어떻게 회향할 것인가?' 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법화경 공자의 비유를 시로 읊은 탁нат한 스님의 '참된 유산' 이라는 詩를 소개하며 나의 얘기를 마무리할까 한다.



“참된 유산 우주는
 진귀한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아침 한 줌 보석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네가 살아있는 순간들마다
 하늘과 땅, 물과 구름 머금고
 그 틈에서 반짝이는 보석들이다.
 기적이 이루어지려면
 부드럽게 쉬는 네 숨결이 필요하다.
 그때 문득 너는
 노래하는 새들과 찬미하는 소나무들,
 피어나는 꽃망울, 파란하늘 흰 구름,
 사랑하는 이의 그윽한
 눈길과 미소를 듣고 보리라.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이면서
 살기 위해 이리 저리 구걸해온 너,
 거지 아들 노릇 이제 그만두고
 돌아와 유산을 물려받아라.
 우리 마땅히 자신의 행복을 즐기고
 그것을 모두에게 나눠 주어야 한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근심의 물줄기는 놓아버리고
 네 가슴 가득 삶을 껴안아라.” 卍

편집부 이길수 녹취





<지난호에서 이어집니다>

조현의 라다크 · 잔스카르 순례기

조 현 | 한겨레신문 종교명상전문기자 (cho@hani.co.kr)

▼ 히말라야 최고 어른

라다크 샴텐링 사원에서 열린 리중 린포체의 겐룩파(황모파) 법좌(종정) 착좌 환영 법회장에서 최고 귀빈은 어린 아이였다. 히말라야 최고 어른이 네살 어린 아이라니. 티베트불교권 밖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최고 귀빈 방석에 ‘근엄’하게 앉아있는 이는 바쿠라 린포체다. 2006년생으로 만네 살이다. 미국의 그랜드캐년을 무색케하는

누브라 계곡의 한 마을에서 난 그는 태어나자마자 전생 바쿠라 린포체의 환생자로 인정됐다.

비행기편으로 라다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나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바로 전생 바쿠라 린포체의 모습이다. 라다크의 통로인 레의 공항 입구엔 전생 바쿠라 린포체의 사진이 걸려있다. 공항이름이 바쿠라린포체공항인 것만 보아도 라다크에서 그의 비중을 알 수 있다.



▲ 바쿠라 린포체

▼ 붓다의 주요 제자 중 한 명으로 20대에 걸쳐 재탄생

전생 바쿠라 린포체는 지난 2005년 86세로 열반하기까지 라다크의 정신적 지주였다. 인도가 영국으로 독립하도록 독립운동에도 투신했던 그는 인도의 초대 수상 네루와 각별

한 사이였다. 인도가 독립된 뒤 잠무·카슈미르주 장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라다크는 잠무·카슈미르주에 속한다.

바쿠라 린포체는 또 네루 수상에 의해 몽골대사로 임명돼 두 차례에 걸쳐 8년 동안 봉직했다. 라다크와 티베트, 몽골은 모두 티베트불교권이기 때문에 티베트불교 사원 고승인 그를 몽골 대사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네루 수상은 또 델리의 요지인 보드 비하르의 대규모 땅을 바쿠라 린포체에게 불하해줘 그가 인도의 수도에서 히말라야불교를 펼치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인도 전체적으로 볼 때 라다크는 히말라야의 궁벽한 산골에 불과하다. 그 라다크 태생으로 네루 수상과 각별한 교분을 갖고 히말라야불교를 널리 펼친 바쿠라 린포체는 라다크인들의 자랑이다.

하지만 원래 바쿠라 린포체는 그런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의 법계 때문에 라다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존경받았다. 원래 '바쿠라'는 2500여년 전 석가모니 생존 당시 16나한 중 한 명이었던다고 한다. 석가모니 붓다의 깨달은 주요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그가 히말라야 땅에 불교를 심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라다크에 태어난 것이 바쿠라 린포체의 시작이었다. 전생 바쿠라 린포체가 19대,

현생 바쿠라 린포체가 20대다. 현생이 20대 밖에 안 된 것은 오래도록 태어나지 않은 적도 있기 때문이란단다.

▼ 온종일 무게 잡고 앉아 있기에는 너무 어려

전생 바쿠라 린포체가 열반에 들자 티베트 불교 고승들은 그의 후신을 찾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전생 바쿠라 린포체가 쓰던 물건들을 골라내 환생자로 인정받았다. 달라이라마도 어린 아이가 바쿠라 린포체의 환생자임을 선포했다.

법회장에 의젓하게 앉아 있는 아이 옆에는 시봉하는 스님이 굳건히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그 시봉자는 전생 린포체의 제자다. 스승을 모시던 제자가 다시 태어난 어린 스승을 곁에서 돌보고 있는 셈이다.

티베트불교의 의식은 지겨울 만큼 오래도록 지속된다. 온종일 계속돼 어른들도 다리가 저리는 법회장에서 어린 아이가 그렇게 앉아있다는 것이 쉬울 리 만무하다. 아니나다를까. 바쿠라 린포체는 잠추세를 하더니 어느새 시봉 스님의 품에 안겨 잠을 잔다.

그런데 어느새 눈을 떴는가 싶더니 뒤에 있던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한다. 그러면서 근엄함과 장난끼 사이에서 갈등하는 난해한 표정을 짓는다. 나중에 알



▲ 바쿠라 린포체는 잠추세를 하더니 어느새 시봉 스님의 품에 안겨 잠을 잔다



▲ 잠시 눈을 돌려 뒤에 있는 숙가의 누너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바쿠라 린포체

고보니, 그 여자아이는 바쿠라 린포체의 숙가의 누나란다. 젓먹이 때부터 떨어져서 사원에서 살아가는 바쿠라 린포체지만 누나와 뛰놀고 싶은 어린 아이의 마음이 느껴진다. 히말라야 최고 어른으로서 무게를 잡고 있기에 현생 바쿠라 린포체는 너무도 어리다.

▼ 전생 능력 믿되 교육과 수행으로 '독특한 영재 교육'

티베트불교의 린포체 제도는 독특하기 그지없다. 전생과 후생을 믿는 티베트불교에선 대부분의 중생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가운데 업력에 의해 후생이 결정되는데 반해 깨달음을 얻은 고승들은 자신의 원력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생 린포체가 다시 태어났다고 여겨지는 어린 아이를 찾아내 그를 린포체로 추대해 존경한다.

린포체로 선정됐다고 해서 전생의 능력만 믿고 어린 아이를 무조건 떠받들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교육과 수행이 뒤따른다.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불교만의 독특한 영재 교육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미리 싹수가 있어보이는 어린아이를 골라내 티베트불교 사원에서 철저히 교육 시켜서 불교의 고승으로 양성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티베트불교에서 린포체 제도의 문제점도 다각도로 나타나고 있다. 어려서부터 대우를 받는데 익숙해진 일부 린포체들이 교육과 수행은 뒷전으로 미루고, 개인의 치부와 사적인 평안만을 갈구해 승가 대중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달라이 라마도 이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재탄생 이론은 '독단적 교리보다 도덕적 수단'

우리나라에 <티베트불교 입문>(청년사)이라는 책으로 번역된 <불교의 본질>의 저자인 탈렉 캅핀 린포체는 애초 불교에서 재탄생의 이론은 '독단적인 교리'로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수단'으로 제시됐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힌두교는 이런 업의 이론을 이용해 상위계급들은 자신들은 그렇게 부유하거나 상류층에서 태어날 만큼 전생에 공덕을 쌓았으며, 천민들은 전생이 죄업을 쌓았기 때문이라며 계급을 고착화하는 논리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캅핀 린포체는 "불교는 운명론을 조장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만일 불만스러운 상황에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거나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업의 이론은 운명론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는 개념" 이란다.



▲ 법회장의 바쿠라 린포체

불교는 모든 행위에 따른 결과인 인과론을 중시한다. 따라서 좋고 나쁜 재탄생들은 보상이나 징벌이라기보다는 우리들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게 티베트불교 학자들의 견해다.

▼ 전생이 어찌 되었건 미래세의 원인이 될 현생이 아름답기를

현생 바쿠라 린포체는 부유하고 후덕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의 뒤엔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생모가 앉아 있었는데, 한 눈에 보아도 후덕해 보인다. 바쿠라 린포체가 전생의 공덕으로 그런 집에서 태어났고, 다시 라다크의 최고 어른으로 대우를 받는 지, 아니면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 없이 운 좋게도 바쿠라 린포체의 후신으로 선정돼 이런 행운을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바쿠라 린포체의 후신으로 선정된 게 그의 개인적 삶에서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 아직은 알 길이 없다.

전생이 어찌됐건 이제부터가 중요할 뿐이다. 오직 그가 인생의 중후반부와 후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기원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과거생이 어찌 되었건 미래세의 원인이 될 현생이 아름답기를!!! 卍



운회를 벗어나기 위해 한 그루 보리심의 나무를 심자

원효

동쪽 어디선가 붉은 그대가 온다. 산을 비추고, 바다를 비추고, 우리가 사는 동네 길 위를 비추고, 드디어 내 마음을 비춘다. 하루가 시작 되는구나. 매일 같은 일상 속에 나는 되묻는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죽고자 하는가.' 오랫동안 화두가 된 이 질문들 속에 나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운문사 졸업을 코앞에 두고, 나는 한 권의 책을 생각 없이 펼쳐 들었다.

운문형식으로 된 짧은 글이었기에 편하게 읽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내 가슴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가 싶더니 두 뺨을 타고 연신 눈물이 흘렀다. 그 감격은 무엇이었을까? 잊혀져 간 그 기억과 느낌을 되살렸다. 책을 모아 놓은 여러 바나나박스를 살살이 뒤져 그 속에서 나는 다시 그 책과 만났다.

바로 산티데바의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이다.

**보리심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없애는 불사의 약이며**


**이 세상의 가난을 없애주는
무진장한 보물입니다.**

**보리심은 이 세상의 질병을
고쳐주는 최고의 약이고**

**운회의 길에 지친 이들에게
피로를 풀어주는 나무 그늘입니다.**

**보리심은 모든 중생들을
악도에서 건네주는 다리이고**

**번뇌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달입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연속이다.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아서,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고통까지 잠깐사이에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무방비로 고통에 노출되어 버린다. 우리가 윤희의 길 위에 있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산티데마는 이런 우리에게 윤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보리심을 굳게 간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면 오랜 세월동안 깊은 명상을 통해 부처님들께서 모든 걸 보셨듯이 보리심은 무수한 중생들을 최고의 행복으로 이끄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남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많은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보리심나무를 키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인간이다.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고통의 그림자를 보게 되면 겁에 질려 피하고 싶어진다. 특히 내가 정말 대면하고 싶지 않은 고통일 때는 더더욱 그랬다. 그러나 보리심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자유를 경험했다. 보리심이란 자신의 삶과 우주의 이치를 훤히 알게 되는 깨달음이자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괴로움에 몸서리치는 중생들에게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자비의 마음이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죽음, 가난, 질병, 피로의 고통에서 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용감하게 나아간다. 뜨거운 번뇌를 피해 보리심의 나무 그늘 속으로 말이다.

한동안 많은 것에 마음을 놓쳐버렸다. 하고 싶었던 일 속에, 업혀버린 관계 속에서 늘 품었던 보리심도 놓쳐버린 것이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품었던 그 화두의 답이 바로 '보리심' 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보리심으로 살아가고, 죽는 순간에도 보리심을 품고 삶을 마감하고자 한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깐. 卍



자기를 분석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작업이다.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살피니까 가장 정확하고 잘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마치 태풍의 눈속에서는 태풍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올바르고, 자신의 감정표출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화를 내거나 타인을 비난할 때도 항상 당연하다고 여긴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살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를 분석할 때는 자신을 살피는 ‘또 다른 자기’가 필요한데 ‘또 다른 자기’도 결국은 자기라는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굴뚝 청소를 하는 형제가 있었다. 함께 열심히 굴뚝 청소를 마치고 나와서는 서로의 얼굴을 살핀다. 형은 얼굴에 그을음이 가득하게 붙어서 시커먼 모습이었고, 동생은 말끔한 모습이었다. 형은 말끔한 동생의 얼굴을 보고 자신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여 세수를 하지 않았고, 동생은 형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여 얼른 세수를 한다.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기를 살피는 자기분석도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자기의 못한 점이 타인에게서 발견되면 타인을 싫어하고 비난하게 된다. 그것이 자신 속에 도사리고 있는 미숙하고 열등한 인격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기를 분석한다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자신의 왜곡된 감정표현 양식을 통찰해야 하고 나아가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착각과

자기중심적 사고방식도 통찰해야 한다. 그러한 일은 엄청난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가히 혁명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살피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감정의 왜곡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장애를 감정장애라고도 한다. 불편한 감정은 대체로 비슷한 상황에서 되풀이해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통찰하는 것이 우선적인 작업이다. 그런 다음에 상황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불편을 느끼는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왜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는지도 알게 된다. 불편한 감정은 내면의 작용이며, 외부의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내면의 반응이다. 내면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된다. 원인을 통찰하는 것이 자기 분석이다. 사람들은 마음속의 불편함의 원인을 대체로 밖에서 찾는다. '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라고 한다. 나의 '불편함'은 외부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외부의 일이 정말 자신과 무관하다면 우리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뭔가 자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은 요동치게 되는 것이다. 자신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또한 자기분석이다.

대인관계의 패턴을 살피는 것도 자기분석의 중요한 작업이다. 혼자 산다면, 타인들과 관계 맺을 일이 없다면, 자신의 모습을 살필 기회도 생기지 않는다. 타인이라는 거울을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일수록 나에게서는 의미있는 거울이 될 수가 있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 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않는 사람들로써 원림(園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보왕삼매론)

뜻이 맞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살피기에는 아주 좋은 거울이다. 물론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자기분석은 지금까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거두어 들이는 일이다. 방향의 전환이다. 卍

하심 下心의 마음

최영순 | 만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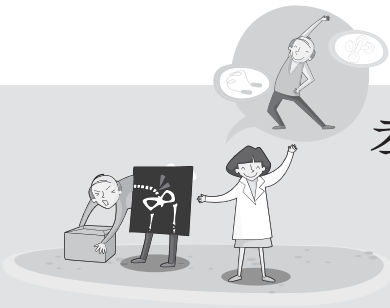


○ 최영순

강릉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소설을 공부했다. 철들기 전에는 학교 대신 강릉 남대천 하구의 억새밭에 누워 있거나 어두컴컴한 싸구려 극장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고, 철든 후엔 '자비원'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길 잃은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한 시절을 보냈다.

1999년부터 본격적인 만화 작업을 시작했다. <불교신문> <스포츠신문> <굿데이>를 비롯한 여러 신문과 <현대모터> 등 사보에 만화를 연재했다.





척추가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두경우 | 다르마 요가원 원장

직립보행으로 문명 얻었지만 질병 생긴宿命 척추의 교정은 생활의 교정으로부터

‘**앞**으로 참 큰일이네!’ 사람들마다 앞날을 내다보며 하는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정치, 경제에 관한 예견일 터인데도, 나는 늘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마음이 쏠린다. 그들은 입시나 공부라는 미래의 행복(?)을 담보로 중노동에 밤늦도록 시달리며, 왜곡된 먹거리를 주식으로 삼고, 온실에 갇힌 화초처럼 허영계 자라가고 있다.

건강한 몸은 힘과 유연성과 균형이 갖춰져야 한다. 이 세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의존되어 있다. 유연성이 있어야 균형을 잡고 힘을 쓸 수 있으며, 힘이 있어야 유연성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균형이 잡혀야 힘과 유연성이 의미 있는 것이다. 독자들은 대체로 건강을 위해 힘을 기르는 데 더 관심이 있을 것이며, 필자

는 척추를 말하고자 함이니, 여기서는 유연성과 균형을 더 강조해야겠다.

건강한 사람은 척추가 유연하고 균형 잡혀 있다. 유연성은 앞뒤좌우 굴신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균형이란 좌우로 치우침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병이 많은 사람은 척추가 뻣뻣하고 불균형하거나 바른 곡선을 벗어나 있다. 불균형하거나 경직되어 있으면, 아직은 아닐 수 있어도 머지않아 통증과 질병이라는 불청객들이 베풀려 찾아올 것이다. 척추를 따라 뇌와 전신의 모든 세포와의 연결망인 신경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흐름이 차단되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해당 장기나 기관은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보행기를 밀며 다니는 노인들은 대한민

국 아니면 보기 힘든 풍경이다. 도시 노인은 등이 굽고, 시골 노인은 허리가 굽는다. 그야 물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등이 휘도록 일해 먹고살고, 자식들 가르치며 집 장만하느라 그랬겠지만, 몸의 왜곡을 알아차리고 수정할 도구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 몸 바라보고 단속할 방도 하나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하다. 인도의 은퇴한 노인들이 아침으로 명상여행을 떠나거나 요가 수련을 하고, 중국의 노인들이 아침마다 태극권 수련으로 반듯한 허리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 부럽지 않을 수 없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으로 안 되면 수술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어서는 안 될 일이다. 쉽게 생각하여 불편한 쪽, 익숙하지 않은 쪽을 더 사용해 주는 것이다. 오른손 잡이는 의식적으로 왼손을 사용하려 애써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몸을 사용하는 대로 전체가 반응하며 그에 알맞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운동을 한다면, 좌우를 골고루 이용하는 균형 잡힌 운동이어야 하고, 한쪽을 사용하는 운동을 한다면 반대쪽으로 훈련하여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주로 한

다면 긴장을 풀어주는 동작을 병행해야 한다.

반 자연적인 음식이나 지나친 육류의 섭취는 몸에 독소를 남기고 유연성을 떨어뜨린다. 채식 소식 자연식 하는 사람이 훨씬 유연하다. 맑은 음식은 몸도 마음도 유연하게 한다. 몸을 정화하거나 단식을 하는 사람의 몸이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보면 납득이 갈 것이다.

척추의 교정은 생활의 교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틀어진 뼈를 바로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육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척추가 바로 서고, 이를 위해 생활의 교정이 앞서야 한다. 특별한 훈련과 교정기법들은 많아도, 자신의 생활습관을 관찰하면 어렵지 않게 불균형의 원인과 균형의 해법을 스스로 구할 수 있다. 어떤 노력이든 척추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높여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다. 척추의 왜곡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 이를 복원하려는 노력도 한순간에 될 일이 아니다. 늘 관찰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자신만이 해 낼 수 있다. ☘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남은미
정토마을 간호사

안개가 정도를 뿌옇게 뒤덮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와서인지 날이 우중충하고 쌀쌀하다. 비 끝이라 그런지 축 처지는 기분을 혼자 전환시키려고 직원들과 장난도 치고 환자들과 우스운 농담을 주고받는다.

며칠 전 스님 한 분이 부처님 곁으로 가셨다. 오신지 며칠 되지 않아 스님은 집에 다녀오겠다며 가시곤 20일 만에 아주 힘겨운 몸으로 정토에 돌아오셨다. 처음 뵈었을 때만 하더라도 산책도 하시고 당신 스스로 모든 일을 하셨었다. 그런데 외출에서 돌아오신 후 너무 많이 쇠약해지셨다. 이제는 혼자 앉고 공양하시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스님을 뵈자 ‘이제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다. ‘언제나처럼 또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구나...’ 너무도 힘들고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공양시간. 스님은 제대로 앉아 계시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쓰러지신다. 나는 스님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말씀드렸다.

“스님 힘드시면 조금 있다가 공양 하세요”

그리고 침대에 눕혀 드렸다. 스님은 아주 힘겹게 대답하셨다.

“응”

침대에 눕혀드리고 나서 손을 잡는 순간 스님 손에 마비가 움을 느꼈다.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지만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스님 손을 주물러드렸다.

“스님 손을 쥐었다 폼다 해보세요.”

스님은 대답 없이 고개를 옆으로 저었다. 나는 스님의 눈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여쭙었다.

“스님 잘 못 하시겠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으시다. 대답조차도 힘드신지 눈을 감으시며 고개를 돌리신다. 나는 손을 주무르며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이대론 안 되겠다’ 는 생각이 들어 스님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모니터를 달고 스님을 계속 지켜보았다. 나는 약간 다급한 목소리로 간호과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오신다는 말에 마음을 진정시켰다.

낮에만 해도 이렇게 빨리 진행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가슴이 뛰었다. 스님의 죽음이 코앞에 왔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스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미안함과 이쉬움이 가슴에 사무쳤다. 스님은 전혀 미동도 없이 잠만 주무셨다. 숨소리만이 스님의 급박함을 알릴 뿐이었다. 나는 불자가 아니다. 그래도 정성껏 스님 앞에서 ‘광명진언’ 을 외워드렸다. 그것만이 스님께 해드릴 수 있는 나의 마지막 말이자 선물이었다.

스님 옆에 앉아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이런 저런 생각들로 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2년 넘게 정토에 있으면서 여러 환자들의 고통, 죽음을 보았다. 처음엔 지켜보는 것조차 힘들고, 무서웠다.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각기 다른 표현들을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고 빠른 진행과 죽음이 날 당황스럽게 했고 무섭게 만들었었다.

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기에 아직 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병들어서 죽어간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여자도 남자도 그리고 젊은이도 늙은이도... 죽음은 참 평등한 것 같다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은 그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많은 말로 그 사람의 인생사를 듣지 않아도 죽음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통해 사람과 삶과 인생을 공부하게 되었다.

죽음은 나를 반성하게 하고, 다듬어 주고, 바꾸어 주는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내일도 모레도 환자들의 고통을 볼 것이고 죽음을 볼 것이다. 나는 그렇게 또 정토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공부하면서...

그래도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참 익숙해지기 어려운 일이다. 卍




한결같은 마음 한화 L&C
자비니눔


2000년 정토마을과 결연을 맺고
현재까지
10년 넘게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정토마을 환우들과 함께하는
한화 L&C 사랑의 봉사단...


그대들에겐 보디사트바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 상진 | 지장정사주지 · 마하보디상담대학원 1년

 **둘,** 이윤희 | 여여청년회회장

 **셋,** 진말숙 | 호스피스 봉사

성오스님, 잘 가시고 계신 거죠?

상진 | 지장정사 · 마하보디상담대학원1년

정말 그랬다. 숨을 거둔 스님의 모습은 현실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10여년이 넘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며 힘들었던 한 생의 역사를 검고 강마르게 드러난 미동 없는 몸이 말해 주고 있었다.

2005년 겨울, 정토마을에서 긴 방학의 시간을 보냈었다.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였던 터라 과일링을 했어도, 환우들과의 만남에 조바심과 두려움이 먼저 앞서던 나에게, 그래도 후배 스님이라고 하얗게 빛나는 치아들 사이 환한 웃음으로 자리를 내 주시며 마음 챙겨 주셨던 분이 성오스님이셨다. 이렇게 나는 스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두어 달의 시간동안 때론 대비심의 보살로, 때론 선배스님으로, 때론 마음을 나누는 도반으로, 때론 작은 소녀로 거듭 변신을 하시던 스님이 너무 재미있었다. 목욕날이 되어 도올라치면, 불편한 몸이었지만 최대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은 허락지 않으셨고 삭발만큼은 재가봉사자가 아닌 꼭 내가 해 주시길 바라셨던 성오스님이다. 사실 성오스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도 않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깊숙이 각인된 사실-성오스님과의 만남-아니겠는가?

보름여 전, 임종을 맞이하신다는 전화를 받고 황급히 찾아뵈었을 때 거친숨 몰아쉬면서도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스님. 눈앞에 죽음이라는 현실의 갈림길에서 계시면서도 승려로서 본연의 수행을 놓지 않으시려는 듯 눅기를 거부하셨다. 바람도 비켜 갈 얇디얇은 육신의 기둥을 세우시며 염불하시던 스님의 모습을 보며, 나는 올라오는 큰 숨을 애써 삼키고 당신과의

시간을 함께 했었다. 그런데 오늘 스님의 임종 앞에서 내 마음은 오랜 시간 폐쇄된 공간에서 쌓임만을 계속했던 두터운 먼지더미와 같다.

성오스님과의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로소 길가의 아름다운 정경이 눈에 들어왔다. 소리 없이 꽃눈 띄워 봄을 무대삼아 춤추던 벚꽃의 마지막 무대를 가던 길 멈추어 구경했다. 눈앞에 펼쳐진 한없는 공간을 가득 메운 하얀 군무황홀경을 성오스님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성오스님,

스님의 영혼은 이제 사대가 분리되었고 각각 인연을 따라 돌아갈 것입니다.

생노병사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던 삶을 벗어던지시고 아미타 염불의 일념 속에 드신다면, 지금 하얀 벚꽃 군무群舞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머무시게 될 것이니 오직 일념으로 아미타부처님을 염念하소서. 그리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을 따르소서. 제불 보살님과 시방의 수호신장과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께 엎드려 절하옵니다. 해동사문 비구니 성오영가 비로소 긴 고통의 터널을 벗어났습니다.

바라옵건대, 크나크신 자비를 베푸사 비구니 성오영가를 진리의 길로, 흔들리지 않는 빛의 길로, 찬란한 지혜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금빛 여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게 하여 주소서.

또한, 완성된 진리의 모습으로, 상서로운 모습으로, 모든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소서.

나무서방대교주 무량수여래불 나무아미타불 卍

언양 자제병원과의 봉사활동 인연

이윤희 | 여여선원청년회회장

언양 자제병원 마하보디교육원과의 인연은 2년 전,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의 사무차장으로 있을 때, 월례 정기이사회에서 마하보디교육원의 원장스님이신 능행스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자리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 때 스님의 말씀은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의 금액이 모였고, 얼마의 금액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스님의 모습에서 정말 외부의 지원손길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금전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다음해 7월 여여선원의 여여청년회의 회장소임을 시작하면서 불교청년회는 법당에서 법회만 볼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리아타自利利他的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에 청년회의 대외 활동을 생각하다보니 능행스님의 모습이 떠올라 마하보디교육원에 전화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다.”는 답을 듣고 청년회 임원단과 함께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언양 자제병원 도량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4명이었습니다. 어색해하는 우리를 총무스님과 별리보살님이 반겨주었습니다. 어찌나 반가워하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시던지 아직도 그 때의 모습이 선합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발일이었습니다. 평소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아 힘도 들고 했지만 이내 곧 익숙해졌습니다. 이후 몇 차례 봉사활동이 계속 진행되면서 참가 인원도 늘어나고 회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직장생활과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와 자연을 벗삼아 봉사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했고, 특히 여담이지만 밥맛이 참 좋다고 하면서 봉사 도중 공양시간이 되면 다들 행복해 하

고 있습니다. 이 곳 마하보디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호스피스 교육도 2명의 범우가 받았습
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월 계획을 수립할 때 봉사활동이 우선되어서 수립되고 있습니다. 청
년회의 이러한 활동은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여청년회에서는 꾸준히 자원봉사에 참여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작은 씨앗으로 받아되어, 마하보디
교육원의 숙원인 자제병원 건립 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도 살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이 많이 생겨서 임종을 앞둔 이들이
편안하게 부처님의 정토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5월을 맞아 마하보디교육원의 인연있는 모든 분들과 여여
청년회의 모든 회원님들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길 부처님 전에 발원합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卍



호스피스 봉사

진말숙 | 봉사자

경주 동국대 봉사했을 때
50대 위암 말기 남자환자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었다.
부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없는 집 장남으로 태어나 모진고생 끝에
동생들 뒷바라지 끝내고 자식들 다 잘 키워놓고
이제야 살만한데 암이란 게 달라붙어
세상을 마감할 날만 기약 없이 기다릴 뿐
그의 아내 안타까워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 달이 지난 후 한통의 전화
여보세요. 아주머니, 우리 아저씨 가셨어요.
아이고, 예 서운하시지요.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아줌마 생각나서 전화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잠깐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한 일일 뿐인데
봉사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음성 꽃동네 갔을 때 지체장애 아동 병동, 여덟살 박이 여자아이
걸지도 못하고 기어 다니는데

이틀간 대리모 교실에 공부하러 갈 때 물리치료 갈 때 따라다니며
오히려 내가 정을 받아서 정이 많이 들었다.
꼭 안으며 엄마 엄마 볼에 뽀뽀 세례까지
떠나올 때 옷자락을 잡고
엄마 가지마.
엄마의 정이 목말라 엄마의 품이 그리워...
떠나오면서 뒤돌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모습 생각하면 가슴이 찡...

봉사하기보다 내가 봉사받는 기분
내가 행복해지니까 말이다.
봉사라는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온다. ㅍ

Bodhisattva



1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입학식(3월 5일)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은 3월 5일 입학식과 함께 3기생들을 맞이하는 환영식이 거행되었다. 입학식에는 위덕대의 장익교수, 동국대의 김경일교수 등이 함께 자리를 빛내 주었다.



2 언양 CPE 센터 봄학기 입학식(3월 13일)

임상현장에서 환자, 학생 등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전문가 양성 교육인 CPE교육이 봄학기 교육생 6명을 맞아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3 전국 CPE센터 정토마을 소풍(4월1일)

전국 CPE센터의 봄소풍이 정토마을에서 있었다. 이 날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정토마을의 시설을 방문하고 능행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4 자제병원기공식 홍보 (4월7일~9일)

사흘에 걸쳐 석남사를 방문하는 108순례단과 모든 관람객등을 향해 석남사 일주문 입구에서 스님들과 직원들이 모두 나와 '자제병원과 자제병원 기공식'을 알리는 홍보를 함께 했다.



정/토/마/을/관/자/재/회/소/식

Bodhisattva

5 제1기 승가연수교육(4월12일~15일)

조계종에서 주관하고 마하보디 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제1기 불교호스피스승려연수교육' 이 교육원에서 3박4일의 코스로 이루어졌다. 이 교육에는 17명의 스님들이 참석하여 무사히 교육을 마쳤다.



6 법당 점안식(4월 29일)

기공식에 앞서 구건물에 계시던 부처님을 새로지은 조립식건물의 법당에 모시고 점안식을 가졌다. 점안식은 우룡 큰스님께서 주관하시고, 대중스님들과 설판제자가 참석한 가운데 거룩하게 이루어졌다.



7 제등행렬(4월 30일)

4월 30일에는 울산에서 개최하는 제등행렬에 마하보디 교육원은 하유스님을 모시고 정년회 등과 사물놀이패가 한바탕 놀이마당을 가졌다. 이번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하는 흥겨운 행사는 울산시민들과 함께하는 어울림의 마당이 되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소재
- 건축면적 : 지하 1층, 지상 4층 2,519㎡ (762평)
- 병 상 수 : 70병상
- 주요서비스 : 호스피스, 완화의료, 재활, 외래, 가정간호, 의료봉사 등

완화의료전문

자제慈濟병원

자제병원은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의 희망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전문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자제병원은 죽음을 통한 삶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품위 있고 존엄한 삶에 대한 학습은 물론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돌봄과 지지를 제공하여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함께 베푸는 나눔!

전문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민들을 위한 종합의료복지타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자제병원은 한분 한 분의 소중한 참여로 건립됩니다.

건립/후원/계좌

농협 401131-51-075952 국민은행 713701-01-140932 (예금주 :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 KTX 울산역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소요시간 약 10분)

● 자제병원 건립 사무국

689-8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Tel : 052)254-2340, 2341 Fax : 052)254-2347

http://jungtoh.com E-Mail : jungtoh@cpebud.com



불교계 최초의 독립형 호스피스인 정토마을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자비 실천의 사랑으로 성심을 다하는
간호와 지지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동행... 정토마을이 함께합니다!

소리없이 외치는 병든 생명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우의 통증관리와 영적지지, 다양한 Case 연구를
통해 정토마을은 21세기 발전된 호스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복잡한 절차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 상 : 말기암 또는 이에 준하는 말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
- 운 영 : 24시간 전인적 돌봄 제공

상담(전화, 방문, 인터넷) → 입소심사 → 입소통보 및 입소



정토마을호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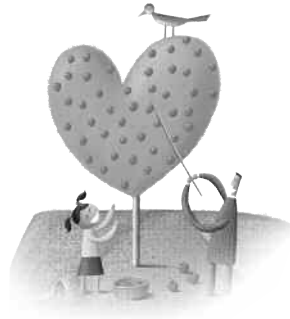
363-871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 043)298-2258/ Fax : 043)298-1457 <http://jungtoh.com> hospice@cpebud.com

후원 참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작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후원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인연은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고통 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정도마음은 물론, 병들고 가난하여 고통 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줄 시설의 건립과 운영에도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빠르고 간편하게 후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후원방법 : 자동이체(CMS), 무통장입금, 지로입금, 물품후원, 복돼지 분양
- 후원접수 : 전화, 홈페이지, 방문
- 후원계좌 : 농협 401120-51-016794
국민은행 713701-01-001909 예금주)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 자동이체(CMS) 후원신청을 하시면 전화 한 통으로 신청, 변경, 해지가 가능하며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후원금을 납부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당신의 고귀한 기부금은

- I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기금으로
- II 불치병 환자를 비롯한 특히, 암환자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 III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사업 기금으로 쓰입니다.

재단정토사관자재회

363-871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Tel : 043)298-2258(代) Fax : 043)298-1457 <http://jungtoh.com> jungtoh@cpebud.com

“진정한 임상전문상담과 치유사로 탄생되는 CPE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1년 CPE 봄학기 교육 접수중 !!!

임상보디사트바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란?

보디사트바를 키워내는 임상전문 훈련교육으로서 병원·학교·가정·사찰 등 중생의 고통이 있는 모든 곳에서 실질적 영적돌봄을 경험하며 자신의 치유와 돌봄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교육입니다.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 교육 일정 안내

- 과 정 : 봄학기(3월~6월), 여름학기(6월~8월) 가을학기(9월~12월)
- 기 간 : 16주간
- 일 정 : 봄·가을학기: 매주 일요일 / 여름학기: 토·일요일
- 시 간 : 오전10시 ~ 오후 5시 30분
- 인 원 : 8명 (정원)
- 자 격 : 스님, 의료인, 교사, 복지사, 임상 상담과 치유에 관심있는 모든 분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 배움 과정

임상환경		교육환경
내담자 그리고 직원과의 관계	경험	그룹동료와 Supervisor의 관계
Case Study를 작성하는 과정&토론	성찰	사례연구 세미나 Supervision시간/개인 및 종교학적 성찰
상담과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영향을 주는 배움	통찰	임상강의/관련 서적 읽고 연구
내담자의 가계도분석		가계도분석 세미나
전이 역전에 대한 분석 직원과 한 팀원이 됨	분석	신념체계 및 삶의 패턴양식 이해하기 자신과 동료들을 지도하는 리더쉽을 배움
헌신과 돌봄을 배움실전	통합	개인과 임상보디사트바를 위한 영적 성장과 새로운 인식변화

정토마을 언양 마하보디센터 임상보디사트바교육(CPE)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마하보디교육원 3층 CPE센터

Tel : 052 264 0117 · 052 264 0209 · <http://jungtoh.com>, <http://cpebud.com>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입/학생/모/집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은 심리치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대학입니다. 불교의 기본교리와 수행방법, 상담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명상을 통한 심리치유방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합니다. 특히 임상과 실습을 강조함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심리치유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성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목표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임상과 치유를 중심으로 한 전문 상담 지도자를 양성하고 사회 곳곳에 고충받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돌봄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 불교의 교학과 현대심리학을 통합하는 불교심리학 이론의 체계화
- 명상수행과 심리상담의 접목을 통한 전문 명상심리 치유사 양성
-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수행과 교육을 통한 자아발견

» 입학안내

1 지원자격

- ① 지도자과정
 - 학사학위를 미취득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석사과정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교육연한 및 시간

- 지도자과정은 4학기, 석사과정 5학기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20분


3 학위 및 자격증 취득

- 지도자과정 이수 시 본 대학원의 졸업증명서와 명상심리치유사 자격증 취득
- 위덕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위덕대학교지도자과정 수료증 취득
- 위덕대학교와 교육협정에 의거한 석사학위 취득

4 전형일정 · 제출서류와 입시상담 문의

- 수시상담을 통해 입학 안내
- 전형서류 제출기간 : 12월 1일~12월 31일
- 전화 : 행정실 (052)264-0180, 행정실장 (손전화)010-2693-8639
- 홈페이지 : <http://www.mahacounseling.com>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이사장



함께 걸어가실 분을 모십니다

보디사트바에 가져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게재 해 주시는 광고는 정토마을
정토사관자재회를 후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법보시하는 인연공덕으로 풍요로움과
지복함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법보시 동참 계좌 >
농협: 815039-51-046631 (예금주: 아띠울)

법보시(보디사트바 광고) 동참 금액 >
• 전 면: 40만 원
• 1/2크기: 20만 원 • 1/4크기: 10만 원

자연과 건강이 숨쉬는 곳 **편백원**
http://cafe.daum.net/oldhinoki



- 편백(히노끼)암반욕
- 편백(히노끼)삼림욕
- 편백(히노끼)효소욕
- 각종 편백용품 및 자재




원네스 깨어남의 코스

ONENESS AWAKENING

- 자신의 현재 삶과 나아갈 방향을 알고 싶으신 분
- 관계의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신 분
- 의식의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시는 분



일시 | 매월 둘째 토요일 (2일간) 장소 | 연양 원네스의 집 문의 | 다정트레이너 011-597-1180, 난초트레이너 011-587-7969

Since 1996년

샐리스피자

연양점

자연치즈 100%사용하는 우리집 대표피자

하나. 리치콜드피자
둘. 치즈바이트피자
셋. 치즈크러스트피자



☎ 052) 264-9400 / 018-234-4849

'세상의 발견 유레카'의 커피전도사 조영환씨

원두커피 볶는 집

순수100% 블루마운틴을 만날 수 있는 곳!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생두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볶아서 보내드립니다.
두 봉지(200gX2) 이상 주문하시면 서비스로
필터를 드립니다.



<http://cafe.daum.net/coffeehall>

☎ 042) 256-4846 / 221-6200

www.dcake.co.kr 떡보의 하루는 100% 국산쌀을 사용합니다.



떡보의 하루

떡케익 떡선물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떡보의 하루에서 맛과 영양, 건강까지 챙겨주세요!

연양점 ☎ 052) 264-6627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마음까지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공간에 시행음의 도움을 주는 신불산

신불산한의원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남무리 253번지 2층

Tel. 052) 263-0052



※ 법보시하는 일에 함께해 주실 분은 연락주세요.
아띠울 출판사 TEL (052)264-0117 / FAX (052)264-0209

33기 불교전문 호스피스교육 안내

since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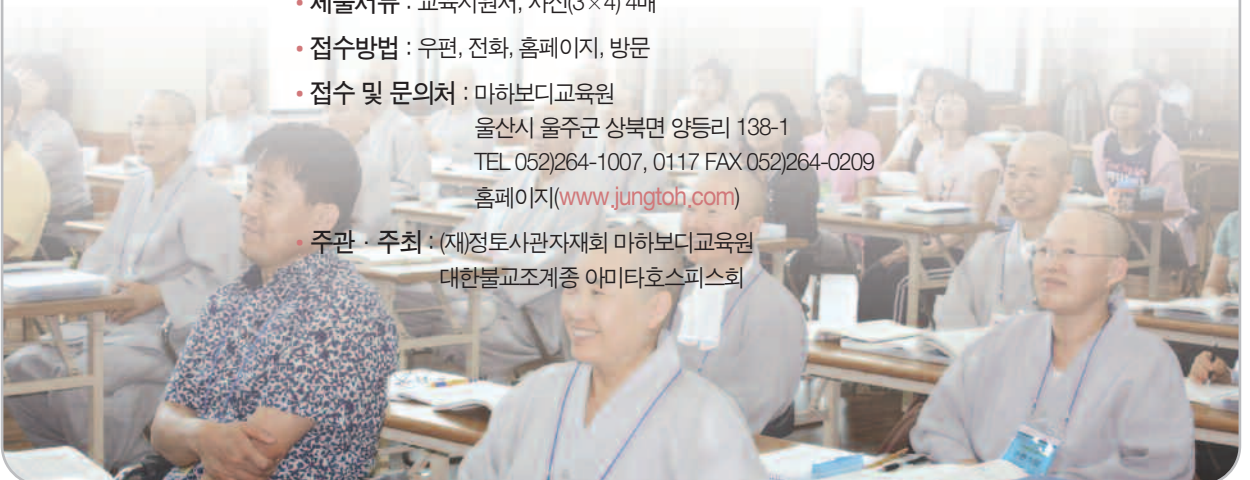
“**호스피스**의 대상은 죽음을 전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불교 호스피스는 우리 삶의 여정 안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자각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수행을 통한 자기 돌봄과 자기 치유를 우선으로 하며, 타인에게 전문적이고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상호관계의 총체적 돌봄입니다.

◎ 33기 불교전문호스피스 교육 안내

(이번 교육부터 스님들의 경우, 승려 연수 교육과정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기간 : 2011년 7월 24일(일) ~ 7월 31일(일)
(7박 8일, 임상실습 50시간 제외)
- 교육대상 : 사부대중
- 교육정원 : 60명
- 교육비 : 65만원 (교재비 포함)
국민은행 713701-01-140961
- 접수마감 : 2011년 7월 16일 도착분 까지
- 제출서류 : 교육지원서, 사진(3×4) 4매
- 접수방법 :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 접수 및 문의처 : 마하보디교육원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TEL 052)264-1007, 0117 FAX 052)264-0209
홈페이지(www.jungtoh.com)
- 주관 · 주최 : (재)정토사관자재회 마하보디교육원
대한불교조계종 아미타호스피스회



완화의료전문

자제병원 기공식



귀의 삼보하옵니다.

새 생명이 대지의 기운을 북돋우고 빛과 향기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시절, 저희 간월산 자락에 위치한 정토마을 자제병원에서는 그동안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발원했던 자제병원의 신축 기공식을 제방의 대덕스님들과 여러 후원자님들을 모신 가운데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초대의 예를 갖추어 정중히 모시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귀한 법석을 채워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 ☼ **행 사** - 자제병원 기공식
- ☼ **일 시** - 불기 2555년 **5월 29일**(음 4. 27) 오전 10시 30분
- ☼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현. 마하보디교육원)
- ☼ **일 정** - 식전 행사 : 육법공양 오전 10시 30분~11시

1부 행사 : 오전 11시~12시

법문 : 수불 큰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축사 : 명성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2부 행사 : 오후 1시~3시

공연 (하유스님 법고)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 **문 의 ☎** 052-254-2340, 264-1007 / Fax, 052-264-0209

※ 참석하신 분들께 능행스님의 에세이집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를 보시합니다.

불기 2555년 5월 29일

자제병원 / 정토마을 能行 합장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 자제병원사무국

